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3권 2호, 2007,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 No. 2, 2007, pp.1-21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부모와 유아교사의 평가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Evalua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regarding Distributive Justice

공인숙(Kong, In Sook)*

본 연구는 전래동화를 이용하여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래동화는 유아교육의 중요 매체이며, 부모와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전래동화를 선택하고 들려줌으로써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부모와 유아교사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40명의 부모와 78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6편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유아에게 유익한지와 가치관형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부모의 평가가 유아교사의 평가보다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편이었다. 이는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평성, 전래동화, 부모, 유아교사

*제1저자 :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부교수, iskong@sunchon.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교육에서는 개인적인 삶과 함께 공동체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물질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세한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인성이나 가치관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은 21세기의 교육 이상인 ‘건강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이 제안된 것(정대련, 1998)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유아기는 인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유아는 이 시기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에 비해 유아는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세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학습하게 된다(Wortham, 1998). 또한 이 시기에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공평성(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개념도 깨닫게 된다. 공평성이란 분배 상황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본 논리이며, 구성원이 분배에서의 공평성을 정당화하는 기본 논리, 즉 조직화의 원리를 공평성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공인숙, 1996).

공평성 추론 연구를 위해 Damon(1980)은 4-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이나 보상을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즉 아동에게 가설적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가장 올바른 분배 방법과 분배 결정의 정당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Kohlberg가 무도덕 수준이라고 본 유아들도 여러 상황에서 공평성 개념을 사용하여 추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가장 어린 아동은 다른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배 계획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점차 집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동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은 단순한 공평성에서 벗어나는 특정 상황을 주목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재주가 많은 것,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 등에 주목하여 분배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 아동은 보다 큰 사회 맥락에서 전체 상황을 맞춰 나가기 시작한다.

Damon(1980)은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이면에 있는 조직화 원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연령에 따른 6단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김미혜(1991, 1992)가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Damon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공평성 개념도 외국 아동보다 조금 늦게 발달하였지만,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향상되는 발달적 현상을 보였다. 또한 공인숙(1996, 1999)은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함께 책임기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공평성 추론 수준

자기중심적 추론 단계

- 1 수준 : 소망 지향 : 가장 원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믿는 경우
- 2 수준 : 외적 특성 지향 : 외적 특성에 근거하여 보상의 분배 결정을 하는 경우

단순 추론 단계

- 3 수준 : 동등 지향 :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 4 수준 : 장점 지향 : 바람직한 특성(장점, 기여)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 5 수준 : 필요 지향 : 특별한 필요를 가진 대상에게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

복합 추론 단계

- 6 수준 : 형평 지향 : 모든 경쟁적인 주장과 특정한 상황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분배해야 한다는 경우
-

출처: 공인숙(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런데 유아기는 동화를 많이 접하는 시기이며, 동화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며, 가장 강력한 교육자료이다(유안진, 1996). 실제로 동화는 아동의 언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교육매체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그 효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최경희, 1993). 유아는 동화 중에서도 전래동화를 좋아하고 많이 접하는데, 흔히 전래 동화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민간 설화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표현이 다듬어지고 재구성된 이야기이다(김영주, 1998). 즉 전래 동화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 오면서 형성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동질성과 함께, 국가와 민족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래 동화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사상의 뿌리를 가지므로 전통 사회를 알아보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또한 아동에게 적합하

도록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아동의 가치관 형성이나 개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진다.

이재철(1986)은 전래동화를 민족의 생활, 신앙, 사상, 정신이 담긴 보고이며 민중이 집단 합작하여 가공한 민족 예술품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유산의 현대적 계승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래동화의 계승은 그 중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전래동화 수용의 문제점 중에서 첫째는 영상매체에 의한 전래 동화의 왜곡이다. 아동이 접하는 전래동화가 원래의 의미와 즐거리가 아니라 각색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래동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래동화가 가지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성은 자칫 판에 박은 교훈성이나 강조하는 재미없는 옛이야기라고 치부될 수도 있다. 셋째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생활과 신앙 사상이 담긴 전래 동화가 현대적 가치에 의해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영주 외,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래동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동의 공평성 개념 형성에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첫째, 전래 동화는 교육성이 강하다. 즉 전래동화에는 선조들의 사교의 논리와 삶의 윤리가 내재해 있으며, 재미 속에 교훈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정대련, 1998). 예를 들어 '의좋은 형제'와 같은 전래동화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형제간의 우애나 효, 은혜와 같은 전통 사회의 가치가 전래 동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 사회의 공동체적 삶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형제간에 우애있게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통해 유아는 공평성에 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래동화에는 민중의 애환이 담겨 있다. 전래동화는 주로 의식주와 같은 인간 삶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예를 들어서 '흥부 놀부' 에서도 놀부가 형으로써 부모의 유산을 다 차지한 것은 공평성 개념에 어긋난 것이고, 이는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유입된 서구적 가치와 지식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나 혼재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나,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녀에게 동일시 과정이나 모델링, 훈육을 통해 영향을 주는 부모나 유아교사도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에게도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가치관 충돌을 보일 수 있는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전래동화를 선택하고 들려주거나, 전래동화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선정하고, 부모와 유아교사에게 제시한 후, 그들이 제시된 전래동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전래동화를 활용한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와 교사의 전래동화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와 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도시인 서울과 울산, 중소 도시인 천안, 이천, 순천에 위치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와 해당 유치원 원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3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한 결과, 부실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240명의 부모와 78명의 유아교사를 포함하여, 총 318명이 최종 연구 대상이었다.

표 2
부모와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부모 빈도 (백분율)	유아 교사 빈도 (백분율)
여	220 (91.7)	77 (97.5)
연령 20-29세	26 (10.8)	54 (69.2)
30-39세	196 (81.7)	15 (19.2)
40-49세	18 (7.5)	9 (11.5)
학력 고졸	136 (56.7)	1 (1.3)
대졸	90 (37.7)	69 (88.5)
대학원 이상	14 (5.9)	8 (10.1)
직업 전문직/관리직	24 (10.3)	
사무직	33 (14.1)	
판매직/자영업	16 (6.2)	
전업주부	167 (69.6)	
근무 연수 5년이하		47 (60.3)
6 -10년		22 (28.2)
11-15년		9 (11.6)
계	240(100.0)	78 (100.0)

부모는 주로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약 82%정도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약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이 38%정도였으며,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6%정도였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가 주로 응답한 관계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약 70%정도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 전문가 집단인 유아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약 70%를 차지하여, 부모 집단에 비해 젊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학력은 대졸이상이 대부분으로 부모 집단보다 높았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연수는 5년 이하가 60%정도이었고, 6년 이상 10년 미만이 28%정도로 근무 연수가 10년 미만이 78%정도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절차

1)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의 선정

선행연구(공인숙, 1996; Damon, 1980)에 의하면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 발달은 소망지향, 외적특성지향, 동등지향, 장점지향, 필요지향, 형평지향의 6수준의 순서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평성 추론의 기준이 되는 소망, 외적 특성, 동등, 장점, 필요, 형평 등의 6개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전래동화를 선정하였다.

전래동화의 선정을 위해서는 3인의 아동학 전공자가 3차례에 걸친 분석 및 선정 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1차로 구성원 간에 무엇인가를 나누는 상황을 다룬 기존 전래동화를 수집한 결과 총 17편의 동화가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표 3>에서와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이 각자 17편의 전래동화를 읽고, 과제, 해결 방안, 공평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끝으로 공평성 기준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 3인 및 유아 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기준별로 1개의 동화를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공평성 추론 수준의 1단계인 ‘소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꿀떡해버린 꿀떡’을, 외적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동등’이 기준이 된 동화로 ‘떡 먹기 내기’가, ‘장점’이 기준이 된 동화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가, ‘필요’가 기준인 경우로 ‘우애 깊은 말머느리’, ‘형평’이 기준이 된 동화로 ‘슬기로운 재판’이 선정되었다.

2) 조사 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질문지는, 부모 및 유아교사의 전래동화책 선택 기준과 시판되는 전래동화책에 대한 문제점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2 문항과 공평성을 다룬 6가지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54문항 및 배경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6문항,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용과 교사용은 배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내용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교사용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 유아교육기관 근무 연수 등이 있었고, 부모용은 직업, 자녀수를 묻는 문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였다.

질문지 구성을 위하여 우선 인터넷의 자녀와 함께 읽는 책에 관한 사이트에서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전래 동화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게시한 48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강경오, 1998; 김미환, 1997; 김정희, 1998; 정대련, 1998)를 참고로 하여, 각각의 전래동화에 대한 인지, 재미, 공감, 가치관 형성에의 적합성, 현대에의 적합성, 유익, 유아의 흥미, 공평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묻는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질문지는 아동학 전공자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유아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예비 조사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표 3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의 내용분석

번호	제목	과제	해결방안	기준
1	떡먹기 내기	떡 한그릇 나누기	사이좋게 똑같이	동등
2	갓에는 풀붓고 뚝배기는 쓰고	음식먹기, 벌 피하기	기지 발휘	
3	나귀 방귀	마술구슬 갖기	버림	
4	달걀과 바꾼 송아지	송아지 갖기	기지발휘	
5	슬기로운 재판	수달피 주인 가리기	사람과 개의 욕구 충족	형평
6	복을 받은 두 친구	땅 문서 나누기	똑같이	동등
7	우애깊은 맏며느리	땅 나누어 주기	기지 발휘	필요
8	돌그릇	마술 돌그릇 나누기	잃어버림	
9	지성이와 감천이	금덩이 나누기	시주 후 복 받음	
10	하늘이 도운 효자	잉어, 딸기 구하기	복 받음	
11	세사람을 구한 삼천냥	돈 구하기	남을 도운 결과 복 받음	필요
12	부자가 된 소금장수	돈별기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부자가 됨	
13	잔원승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떡나누기	속이고 욕심부림	장점
14	비단 띠에 눈 먼 지렁이	눈과 띠 바꿈	지렁이가 교환 후 후회	외적 특성
15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떡 나누기	기지 발휘, 두꺼비 모습 변화	외적 특성
16	꿀떡해버린 꿀떡	떡 나누기	속여서 혼자 먹음	소망
17	빈대네 제사날	제사음식 나누기	서로 싸움	소망

3) 조사 절차

본 조사는 대도시인 서울과 울산, 중소 도시인 천안, 이천, 순천에 위치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와 해당 유치원 원아의 부모에게, 총 3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교사를 통해 회수한 결과, 부실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318부를 분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부모 집단과 유아교사 집단의 전래동화책 선택 및 공평성을 다룬 전래 동화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과 t 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와 유아교사의 전래동화책 선택 기준

부모와 유아교사는 <표 4>에서와 같이 전래동화책을 선택할 때 제목이나 편집상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약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화책을 발간한 출판사의 규모나 인지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 34%정도였다. 다음으로 신문이나 서점의 추천을 고려하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21%정도였다. 그에 비해 판매 정도를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는 부모와 유아교사가 전래동화를 선택할 때, 전래동화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화책 자체의 상태를 고려하는 경향이 많음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부모와 유아교사가 전래동화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는 동화책의 제목이나 편집 상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부모보다 많은 반면, 부모는 유아교사보다 출판사의 규모나 인지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부모가 유아교사에 비해 유아교육자료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출판사의 규모와 같은 외적 조건을 고려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신문이나 서점의 추천이나 판매 정도를 고려하는 정도는 부모와 유아교사 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4
부모와 유아교사의 전래동화 선택 기준의 차이

	부모 빈도 (백분율)	교사 빈도 (백분율)	계	χ^2
출판사 규모 고려함	90 (37.5)	18 (22.8)	108(33.9)	5.75*
인지도 고려하지 않음	150 (62.5)	61 (77.2)	211(66.1)	
계	240(100.0)	79(100.0)	319(100.0)	
팔린 정도 고려함	11 (4.6)	3 (3.8)	14(4.4)	.09
고려하지 않음	229 (95.4)	76 (96.2)	305(95.6)	
계	240(100.0)	79(100.0)	319(100.0)	
신문이나	56 (23.3)	11 (13.9)	67(21.0)	3.17
서점의 추천 고려하지 않음	184 (76.7)	68 (86.1)	252(79.0)	
계	240(100.0)	79(100.0)	319(100.0)	
제목이나	88 (36.7)	45 (57.0)	133(41.7)	10.07**
편집상태 고려하지 않음	152 (63.3)	34 (43.0)	186(58.3)	
계	240(100.0)	79(100.0)	319(100.0)	

** $p < .01$, * $p < .05$

2. 부모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부모가 6편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았다. 우선 부모가 제시된 전래동화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최저 1.93에서 최고 2.47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꿀떡해버린 꿀떡’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떡 먹기 내기’ (2.17),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2.10), ‘슬기로운 재판’ (2.03), ‘우애 깊은 맏며느리’ (1.98),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1.93)의 순서로 이전부터 전래동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는 1.9로, 부모들이 거의 모르는 전래동화이며,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꿀떡해버린 꿀떡’도 중간값인 2.5보다 낮아서 잘 모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령 상 3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는 부모에게도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전래동화가 부모에게 재미있는 지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전래동화를 2.77에서 2.85정도로 중간값 이상으로 평가하여, 부모는 전래동화를 비교적

재미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래동화가 재미 속에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정대련, 1998)거나, 부모가 전래동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재미때문이라는 연구(강경오,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는 제시된 전래동화 중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전래 동화의 내용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특히 ‘슬기로운 재판’, ‘우애 깊은 만며느리’의 내용에 대한 공감 정도는 2.94와 2.90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래동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는 ‘꿀떡해버린 꿀떡’ (2.33)과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2.37)는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지 않은 편이나, 나머지 전래동화는 적합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꿀떡해버린 꿀떡’ 과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의 경우, 소망지향과 외적 특성 지향이라는 자기중심적 추론 단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유아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관 형성을 바라는 부모가 ‘꿀떡해버린 꿀떡’ 과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래동화의 내용이 현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부모는 ‘꿀떡해버린 꿀떡’ (2.25),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2.25), ‘떡 먹기 내기’ (2.47)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2.50), ‘슬기로운 재판’ (2.58), ‘우애 깊은 만며느리’ (2.68)는 적합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경우, 장점 지향 이상의 보다 높은 수준의 공평성 추론을 다룬 전래동화가 현대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소망지향 공평성 추론 수준을 반영하는 ‘꿀떡해버린 꿀떡’을 제외한 나머지 전래동화는 모두 아동에게 유익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전래동화의 공평성추론 기준이 높아질 수록, 부모가 유익하다고 평가한 정도가 증가하였다. 부모는 아동이 제시된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2.87)는 아동이 전래동화 중 가장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부모 자신의 전래동화의 재미에 대한 평가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아의 흥미가 부모의 흥미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부모는 ‘꿀떡해버린 꿀떡’ (2.08)과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2.42)를 제외한 나머지 전래동화는 공평한 편이라고 보았다. 이는 부모가 자기중심적 추론에 의해 배분을 한 경우는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동등지향 이상의 추론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 동등지향의 ‘떡 먹기 내기’가 장점지향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보다 더 공평하다고 평가한 점을 제외하고는 공평성 추론 수준에 따라 부모의 전래동화의 공평

성에 대한 평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부모의 전래동화 평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는 공평성을 다른 전래동화가 재미(16.72)있으며, 유아도 재미있어 할 것(16.63)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음으로 전래동화가 공평하며(16.55), 전래동화의 내용에 공감하며(16.22), 유익하다(15.80)고 보고 있었다. 그에 비해 공평성을 다른 전래동화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15.65)나, 전래동화가 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15.37)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전래동화가 현대에 적합(14.73)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는 특히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는 부모의 교육수준, 연령, 성별, 직업이나 가정에서 동화책을 들려주는 정도와는 무관하였다.

표 5

부모의 공평성을 다른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동화 (M,SD) 문항	꿀떡해버린 꿀떡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떡 먹기 내기	원숭이 영덩이가 빨간 이유	우애 깊은 만머느리	슬기로운 재관	계
전부터 알고 있었다	2.47(.81)	1.93(.72)	2.17(.76)	2.10(.72)	1.98(.58)	2.03(.62)	15.65 (3.62)
재미 있었다	2.77(.61)	2.77(.56)	2.79(.51)	2.77(.51)	2.77(.51)	2.85(.47)	16.72 (3.27)
내용에 공감한다	2.65(.58)	2.41(.56)	2.71(.59)	2.61(.60)	2.90(.52)	2.94(.51)	16.22 (4.35)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다	2.33(.62)	2.37(.61)	2.52(.60)	2.52(.62)	2.79(.56)	2.84(.50)	15.37 (3.92)
내용이 현대에 맞는다	2.25(.59)	2.25(.59)	2.47(.62)	2.50(.63)	2.58(.60)	2.68(.58)	14.73 (3.83)
아동에게 유익하다	2.38 (.63)	2.52(.61)	2.60(.62)	2.64(.58)	2.80(.53)	2.86(.52)	15.80 (3.54)
아동이 재미있어 할 것이다	2.78(.57)	2.74(.51)	2.81(.58)	2.87(.52)	2.62(.61)	2.81(.52)	16.63 (3.60)
공평하다	2.08(.61)	2.42(.66)	2.86(.54)	2.77(.58)	2.81(.49)	2.89(.53)	16.55 (4.23)

3. 유아 교사의 공평성을 다른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유아교사가 6편의 공평성을 다른 전래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유아교사가 전래동화를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즉 유아교사는 ‘꿀떡해버린 꿀떡’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원숭이 영덩이가 빨간 이유’ (2.41), ‘떡 먹기 내

기' (2.14)를 일고 있었으며,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1.97)와 '슬기로운 재판' (1.96), '우애 깊은 맘머느리' (1.96)의 순서로 전래동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동화를 자주 접하는 유아교사에게도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전래동화가 유아교사에게 재미있는 지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전래동화를 2.60에서 2.83정도로 중간값 이상으로 평가하여, 유아교사는 전래동화를 비교적 재미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는 제시된 전래동화 중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2.29)와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2.47)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전래 동화에 대한 평가는 2.56에서 2.82까지로 중간값 이상을 보여, 전래동화의 내용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특히 '우애 깊은 맘머느리' 와 '슬기로운 재판' 의 내용에 대한 공감 정도는 2.77과 2.82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두 가지 전래동화가 필요 지향과 형평지향이라는 높은 기준을 나타는 전래동화이므로 유아교사의 공감 정도가 높았을 것이다.

전래동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유아교사는 '우애 깊은 맘머느리' (2.59)와 '슬기로운 재판' (2.79)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지만, 나머지 전래동화는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래동화의 내용이 현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유아교사는 '슬기로운 재판' (2.65)외의 다른 전래동화는 현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는 '떡 먹기 내기' (2.60), '우애 깊은 맘머느리' (2.71), '슬기로운 재판' (2.78)이 아동에게 유익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유익한 정도에 대한 평가는 공평성추론 수준의 증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교사는 아동이 제시된 전래동화를 모두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 (2.84)는 아동이 전래동화 중 가장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유아교사 자신이 '슬기로운 재판' 이 가장 재미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유아교사는 '꿀떡해버린 꿀떡' 과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 를 제외한 나머지 전래동화는 공평한 편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이상의 전래동화 평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는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유아가 재미(16.59)있어 할 것이며, 유아교사 자신도 재미(16.41)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래동화의 내용에 공감하며(15.58), 유익하며(15.15), 공평하다(15.08)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아교사는 전래동화가 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14.59)하거나, 내용이 현대에 적합(14.38)하다고 보지 않으며, 전래동화를 아는 정도(13.02)도 비교적 낮았다. 이상의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는 유아교사의 교육수준,

연령, 교사 경력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들려주는 정도와 무관하였다.

표 6

유아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동화 문항 (M,SD)	꿀떡해버린 꿀떡	두꺼비 등이 우물두툼한 이유	떡 먹기 내기	원숭이 영덩이가 빨간 이유	우애 깊은 만머느리	슬기로운 재판	계
전부터 알고 있었다	2.58(.83)	1.97(.64)	2.14(.71)	2.41(.74)	1.96(.70)	1.96(.69)	13.02(3.98)
재미있었다	2.79(.59)	2.60(.54)	2.66(.62)	2.75(.52)	2.78(.53)	2.83(.44)	16.41(4.08)
내용에 공감한다	2.56(.59)	2.29(.62)	2.67(.57)	2.47(.55)	2.77(.56)	2.82(.58)	15.58(2.39)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다	2.17(.57)	2.28(.51)	2.33(.62)	2.43(.62)	2.59(.64)	2.79(.60)	14.59(3.59)
내용이 현대에 맞는다	2.33(.55)	2.10(.55)	2.45(.57)	2.40(.61)	2.45(.62)	2.65(.62)	14.38(3.22)
아동에게 유익하다	2.25(.64)	2.36(.56)	2.60(.62)	2.45(.57)	2.71(.58)	2.78(.53)	15.15(3.35)
아동이 재미있어 할 것이다	2.78(.55)	2.81(.58)	2.81(.58)	2.84(.56)	2.62(.56)	2.73(.60)	16.59(2.40)
공평하다	2.08(.56)	2.23(.58)	2.81(.56)	2.54(.60)	2.59(.62)	2.83(.47)	15.08(2.95)

4. 부모와 유아 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의 차이

부모와 유아 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선정된 전래동화에 대한 부모와 유아교사의 평가는 유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래동화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 오면서 형성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비교적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표 7

부모와 유아 교사의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 차이

	부모 평균 (표준편차)	교사 평균 (표준편차)	t
꿀떡해 버린 인지	2.47 (.81)	2.58 (.83)	-1.04
꿀떡 재미	2.77 (.61)	2.79 (.59)	- .32
공감	2.65 (.58)	2.56 (.59)	1.10
가치관형성 적합성	2.33 (.62)	2.17 (.57)	2.07**
현대에 적합성	2.47 (.63)	2.33 (.55)	1.73
유익	2.38 (.63)	2.25 (.64)	1.51
아동의 재미	2.78 (.57)	2.78 (.55)	- .01
공평성	2.08 (.61)	2.08 (.56)	- .02
두꺼비 등이 인지	1.93 (.72)	1.97 (.64)	- .46
우물두들한 재미	.77 (.56)	2.60 (.54)	.94
이유 공감	2.41 (.56)	2.29 (.62)	1.63
가치관형성 적합성	2.37 (.61)	2.28 (.51)	1.21
현대에 적합성	2.25 (.59)	2.10 (.55)	1.91
유익	2.52 (.61)	2.36 (.56)	2.01*
아동의 재미	2.74 (.51)	2.81 (.62)	- .97
공평성	2.42 (.66)	2.23 (.58)	2.15
떡 먹기 인지	2.17 (.76)	2.14 (.71)	.33
내기 재미	2.79 (.51)	2.66 (.62)	1.75
공감	2.71 (.59)	2.67 (.57)	.57
가치관형성 적합성	2.52 (.60)	2.49 (.60)	.47
현대에 적합성	2.47 (.62)	2.33 (.62)	1.68
유익	2.60 (.62)	2.45 (.57)	1.94
아동의 재미	2.81 (.58)	2.81 (.58)	.07
공평성	2.86 (.54)	2.81 (.56)	.66
원숭이 인지	2.10 (.72)	2.41 (.74)	-1.75
엉덩이가 재미	2.77 (.51)	2.75 (.52)	.26
빨간 이유 공감	2.61 (.60)	2.47 (.55)	1.71
가치관형성 적합성	2.52 (.62)	2.43 (.62)	1.07
현대에 적합성	2.50 (.63)	2.40 (.61)	1.31
유익	2.64 (.58)	2.45 (.57)	2.50*
아동의 재미	2.87 (.52)	2.84 (.56)	- .26
공평성	2.77 (.58)	2.54 (.60)	.82

우애깊은 인지	1.98 (.58)	1.96 (.70)	.28
말머느리 재미	2.77 (.51)	2.78 (.53)	- .17
공감	2.90 (.52)	2.77 (.56)	1.88
가치관형성 적합성	2.79 (.56)	2.59 (.64)	2.54*
현대에 적합성	2.58 (.60)	2.45 (.62)	1.63
유익	2.80 (.53)	2.71 (.58)	1.25
아동의 재미	2.62 (.61)	2.62 (.56)	- .04
공평성	2.81 (.49)	2.59 (.62)	3.13**
<hr/>			
즐거로운 인지	2.03 (.62)	1.96 (.69)	.82
재판 재미	2.85 (.47)	2.83 (.44)	.33
공감	2.94 (.51)	2.82 (.58)	1.69
가치관형성 적합성	2.84 (.50)	2.79 (.60)	.66
현대에 적합성	2.68 (.58)	2.65 (.62)	.32
유익	2.86 (.52)	2.78 (.53)	1.18
아동의 재미	2.81 (.52)	2.73 (.60)	1.09
공평성	2.89 (.53)	2.83 (.47)	.82

** $p < .01$, * $p < .05$

그러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의 몇 가지 영역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부모와 교사의 평가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는 유아교사보다 ‘꿀떡해버린 꿀떡’이 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는 유아교사보다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와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가 유아에게 유익하다고 보고 있었다. 부모는 유아교사보다 ‘우애 깊은 말머느리’가 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적합하며, 공평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 ‘떡 먹기 내기’와 ‘즐거로운 재판’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모와 유아교사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일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유아에게 유익한지와 가치관형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부모의 평가가 유아교사의 평가보다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6편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을 위한 교육동화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의 교육에서 요구되는 중요 덕목인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유아의 부모와 전문가 집단인 유아교사의 평가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5개 도

시에 거주하는 240명의 부모와 78명의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전래동화책에 대한 선택 기준과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부모와 유아교사는 전래동화책을 선택할 때 제목이나 편집상태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동화책을 발간한 출판사의 규모나 인지도, 신문이나 서점의 추천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부모와 유아교사가 전래동화책의 판매 정도를 고려해서 전래동화책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다음으로 유아 교사는 전래동화책의 제목이나 편집 상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부모보다 많은 반면, 부모는 유아교사보다 출판사의 규모나 인지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많았다.

둘째, 유아교사와 부모는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연령상 30대 이상이 대부분인 부모나,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아교사에게도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비교적 생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부모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래동화를 직접 기술하도록 한 연구(강경오, 1998)에서, ‘홍부 놀부’, ‘콩쥐 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금도끼 은도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나무꾼과 선녀’, ‘토끼전’, ‘흑부리영감’,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의 10여 편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주로 선호되었으며, 그 외의 전래동화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래동화집 발행 현황을 살핀 연구(최운식·김기창, 1988)에서 총 87권의 전래동화집의 수록 동화 중, 15회 이상 수록된 전래동화는 ‘도깨비 방망이’, ‘토끼전’, ‘나무꾼과 선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의 10여 편에 불과했다는 결과나, 유치원의 한국전래동화 보급이 아주 부족하다(이경미, 2000)는 사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유아교사나 부모에게 인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전래동화가 현대에 계승되는 정도가 미미하며, 전승되는 종류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전래동화를 계승시키고 전래동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 유아교사는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잘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재미있으며, 유아도 재미를 느낄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래동화가 이야기 자체에 매력이 있으며(강경오, 1998; 정대련, 1988), 약 74%정도의 유아가 전래동화에 대해 재미있어한다(이경미, 2000)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재미있다는 것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 도구로 사용할 때, 유아나 유아교사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화 등의 문학 작품은 텔레비전이나 전자게임과 같은 매체가 폭력성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해, 인간의 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상섭, 1988; Garrod, 1982). 또한 전래동화는 상상력

과 언어의 심미적 형식에 의한 삶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공인숙·유안진, 1994; 최운식·김기창, 1988)고 여겨져 왔다. 실제로 유아교육에서 우화와 동화는 중요한 도덕성 개발 수단이 되고 있으며(Tappan, 1998), 초등학교의 교과 과정에서도 전래동화는 품성 도야와 바른 생활 습관 형성 등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최경희, 1993).

넷째, 일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해 유아에게 유익한지와 가치관형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부모의 평가가 유아교사의 평가보다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편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가 전래동화에 대한 응답에서 유사하였다(강경오, 1998)거나 부모와 교사는 전래동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에서, 부모가 교사보다 전래동화를 보다 교훈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외의 감동, 재미 등의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김영주 외,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와 유아교사의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에 대한 평가가 연령, 직업, 성별, 경력 등과 같은 개인적 변수와 무관했다는 점에서,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우리 민족의 공통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전래동화가 남북한 분단 이후에 민족에게 생겨난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김경중, 1997)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5개 도시에서 임의 표집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에게 전래동화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유아교사의 평가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가 공평성을 다룬 전래동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전래동화를 활용한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오(1998). 부모와 교사가 선호하는 전래동화에 관한 조사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 유안진(1994).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10.
- 공인숙(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9).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의 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91-203.
- 김경중(1997). **동화 및 언어지도**. 서울: 양서원.
- 김미혜(1991).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의 발달. **아동학회지**, 12(2), 5-17.
- _____(1992).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환(1997). 전래동화의 인간학적 진술과 교육학적 의미 고찰. **교육철학**, 17, 129-146.
- 김영주(1998).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나는 아버지 역할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주, 유안진, 공인숙, 한미현(2002). 부모와 유치원 교사의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5-191.
- 김정희(1998). 전래동화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00). 유치원 교사의 한국전래동화에 대한 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안진(1996).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24(3), 291-303.
- 이상섭(1988).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재철(1986). **아동 문학의 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 정대련(1998). 전래동화에 나타난 인간상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0, 37-63.
- 최경희(1993).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식, 김기창(1988). **전래동화교육론**. 서울: 집문당.
- Damon, W.(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1017.

Garrod, A. C. (1982).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teaching of literature: a context for moral and ego growth in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AAC 8328374 ProQuest - Dissertation Abstracts.

Tappan, M. B. (1998). Moral education in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J. of Moral Education*, 27(2),141-160.

Wortham, S. C.(1998). *Early childhood curriculum: developmental bases for learning and teaching*. OH: Merril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btain the basic data in order to develop the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program for preschooler. To fulfill this ai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s'and kindergarten teachers'preference in the selec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 and the extent to which parents'and kindergarten teachers'evalua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dealing distributive justice are in agreement with each other.

The subjects were 240 parents and 78 kindergarten teachers selected from five cities in Korea. The questionnaire with six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which deal with the sharing problem among the friends and the families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in SPSS Win 10.0 program, by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χ^2 and t-test.

As a result, most important factor in selecting the traditional fairy tale was the title and the editing state of the book for the kindergarten teacher, while it was the good fame of the press for the parent. The congruence existed between parents'and kindergarten teachers'evaluation in knowledge, adaptability for modern times, amusement and empathy in the func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regarding distributive justice. Meanwhile parents evaluated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re more adaptive for value formation and useful than teachers did.

Key Words: distributive justice, traditional fairy tales, parent, kindergarten teacher

2007. 5. 1. 접수 : 2007. 10. 30. 채택